

보고 일시	2022. 8. 7.(일) 12:00			
담당 부서	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	책임자	실 장	최우정 (052-928-8200)
		담당자	연구관	박상현 (052-928-8220)

태풍·산불 등 재난 피해자 3천여 명 목소리 청취 -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「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」 실시 -

-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(원장 이종설)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2개월 동안 ‘2022년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, 일시대피자 등 피해자들의 회복 실태를 파악하여 재난 구호 등 지원 제도에 대한 효과 및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.
- 조사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에 발생한 9개* 주요 재난을 겪은 3천여 명으로 1대1 대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.
- * ①2019년 동해안 산불, ②2019년 태풍 링링, ③2019년 태풍 미탁, ④2020년 집중호우(7~8월), ⑤2020년 태풍 마이삭, ⑥2020년 태풍 하이선, ⑦2021년 집중호우(7월), ⑧2021년 태풍 오마이스, ⑨2022년 경북·강원 산불
- 조사내용은 구호물품, 심리지원, 임시주거시설 등 정부 지원 사항에 대한 만족도, 개선의견 및 재난 이후 경제적·사회적·신체적·심리적 피해 정도 및 회복 상태 등이다.
-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구호물품과 관련된 의견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듣고, 기존 구호물품의 품질과 수량 개선 및 신규 구호물품을 발굴하는 등 구호물품 전반에 걸쳐 개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재난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‘재난심리회복지원’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
- ‘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’ 결과는 재난·안전 분야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(www.ndmi.go.kr)을 통해 올 12월에 공개될 계획이다.

-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의 조기 일상회복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